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74 1981년11월1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November 1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NOV 2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모국어 교육 보고서 건의

정규수업을 모국어로

토론토교육위원회 소속 모국어교육전담 특별연구반은 17일 하오2시 에트닉그룹 언론인들을 초청, 지난 6개월간 모국어 교육 실시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에트닉그룹의 실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니·실리포 반장은 이날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모국어교육 정책을 지양, 좀더 적극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국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조사로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실리포 반장은 이와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로 ①많은 에트닉 그룹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모국어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②에트닉그룹 멤버들이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에트닉그룹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이 이론과 경험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국어 교육전담 특별연구반이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모국어교육정책을 단기와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단기계획에서는 모국어를 영어나 불어처럼 정규시간에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조건과 설비가 허락하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구한다. 장기계획으로는 모국어를 과목으로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언어"로서 사용한다는 안이다. 즉 특정 에트닉그룹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는 학과목을 영어나 불어가 아닌 에트닉언어로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장기계획의 실시 시기에 관계자들은 적어도 10년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답변했다.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이민자학생들이 언어장애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잃고, 성격이 비뚤어져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보아왔다며 교육적인 면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을 위해서도 모국어교육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는 일본, 중국, 그리스, 인도 등 각 에트닉계 언론인들 15명의 참석과 교육위측 인사 16여명이 동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교육회관(155 College St.)에서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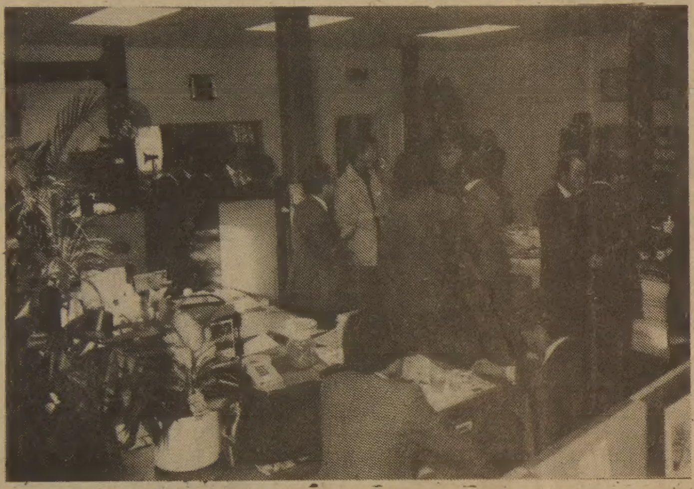
동보고서는 각학교를 에트닉 그룹분포도에 따라 A, B, C, 3개 그룹으로 분류, 한학교에 특정에트닉 그룹 학생들이 90% 이상이거나 100명이 넘는 A그룹에 속하는 학교는 모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토론토시에는 25개의 국민학교가 A그룹에 해당되고, 모국어교육은 국민학교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동보고서는 이를 고등학교 수준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토론토의 학생중 50% 이상은 모국어가 영, 불어가 아니다.

이같은 모국어전담 특별연구반의 초안보고서는 토론토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

교육위는 12월3일부터 16일 사이에 5번에 걸쳐 이번 모국어교육 전담반의 건의내용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갖는다.


◇축하케익을 자르는 순간. 우로부터 이상훈 총영사·김명규 사장·갓프리의장, 그 다음이 홍종표 맥스협회장·조성호 무역관장·스탠 휴즈 맥스매니저·윤방현 자문위원.

◇하객들이 본사2층 편집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갓프리 시의회의장도 참석

본사이전 자축파티

본사이전 자축파티가 지난 14일(토) 하오1시~9시 본사옥(1025 Dupont St. Tor.)에서 300여명하객의 내방으로 성황리에열렸다.

격식적인 절차를 생략, 자유로운 대화를 위주로한 칵테일파티에 뒤를 이어모인 하객들은 담소와 사교를 겸해 사옥구경, 윤전기 식자실등 시설견학도 했다.

특히 이상훈 토론토주재 총영사는 본사의 발전상을 이민사회 성장의 한 본보기로 높이 평가, 타이민그룹에 드문 일간발행의 도약과 공헌을 축하하면서앞날 언론창달에 더한층 발전을 축원했다.

이날 특별초청된 메트로토론토시의회 폴·갓프리 의장은(다른도시 시장에해당) 인사말에서 "한국인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겠다. 또 이렇게 한국일보가 확장, 일간으로 발전한대에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토론토시의 아름다움은 두말할것도 없고 우리시는 여러 민족이 모여사는 복합문화도시이다. 미국의 경우 여러 민족들이 모여, 미국이라는 하나의 특수용기안에 용해된(Melting Pot) 사회이나 우리캐나다는 여러민족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Mozaic)같은 사회다"고 말했다.

그밖의 외국인으로서는 스탠·휴스 맥스밀크회사 매니저도 본사의 시설, 건물을 참관, "원더풀!"로 축하해 주었다.

이날 화환, 금품등 기증자는 91명에 달했다.

한편 최근 본사가 벌이고 있는 「영구구독자」모집에는 20여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35 BLOOR ST. W(한국관

〈1982년도 캐나다 예산안 해설〉 ①

대부분 특별세제구멍막혀

의료비도 OHIP외에 소득세 대상

회계사 심상수제공 (Mintz and Partners근무)

(**편집자 주:**) 다음 글은 회계사 심상수씨가 근무하는 민츠·앤드·파트너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심상수씨와 6명의 회계사가 공동집필한 것이다. 본사는 영문원본을 심씨를 통해 입수, 요약해 게재한다. 예산안에 관한 문의는 787-0151 Mr. 심에게 직접하면 된다(하오시간).

◇심상수씨

(**서론**) 12일 저녁 연방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조세전문가들과의 많은 논란끝에 나온 대개혁안이다.

맥케큰 재무장관은 서문에서 "공평의 원칙"에 입각, 수십개의 특별세제(감세내지 면세가 되는 세금제도)를 없앴다고 했다.

「맥」장관이 지적했듯이 79년도분 소득세중 약 470억달러가 특별세제 등으로 빠져나갔다.

이같은 특별세제를 없애면 예산수입의 삭감 없이 세금률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예산안으로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들에 대한 많은 세제혜택이 없어졌고, 소기업을 정의하는 자본금도 늘어났다.

또 이번 예산특징중 하나는 연방세와 주세를합한 최고세율이 62%에서 50%가 됐다.

동 장관은 국민의 적인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방법으로 임금과 가격통제를 들고 나왔다.

한 마디로 말해 이번 예산안은 여러가지 특별세를 막고 새로운 세제책을 제시한 어쨌든 대개혁이다.

이러한 세제책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만 이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신예산은 금년말까지 연방의회 통과에 이어 내년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회사등에 관한 조항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했다.

(**본론**)

1) 개인에게 미치는영향

○82년부터 회사차를 개인용도에 이용하는 종업원들은 매월 차값의 2.5%가개인소득으로 간주, 세금대상이 된다. 렌트카의 경우도 5/6가 개인소득이 된다.

즉 10,000달러짜리 회사차를 쓰면 월 250달러가개인소득이 된다.

회사차를 이용함으로 써 생긴 소득이 정부의 기준치 보다 적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는 모든 임금외 혜택이 개인소득으로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의료혜택(OHIP등) 감면될 수 있다. 그외에회사에서 받는 침식, 휴가비등도 개인소득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회사원이나 주주에게 주던 무이자 융자혜택은 5만달러까지, 또는 500달러의 이자까지는 면세대상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으로 액수에 관계없이대부액에 해당되는 이자가개인소득이다.

82년도의 이자율을 19%로 일괄적용된다.

○82년도 개인소득중 정부가 인정하는 세금공제액의 세금지표는 다음과 같다.

〈1982년도〉

기본개인비용	$3,560
배우자공제	$3,110
18세이하의자녀	$670
18세, 또는 이상 자녀	$1,220
연령공제	$2,220
불구자공제	$2,220

어린자녀에게 주는 세금공제액은 293달러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소득 26,330달러 미만의 가정에만 해당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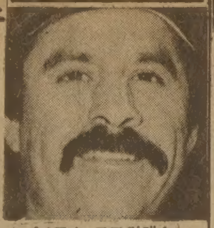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양키스3루수로드리게스

블루제이스에 입단


◇3루수 로드리게스

블루 제이스는 지난 가을 농구선수로 떠나버린 3루수 대니·에인지 자리에 뉴욕·양키스의 노장 어레리오·로드리게스(33)를 얻었다. 그렉·네틀츠와 같이 3루수로 활약하던 로드리게스는 프로야구 경력 15년의 노장이다. 금년도 그의 타율은 27게임에서 3할4푼6리이고, 월드시리즈 4게임에서 4할1푼7리를 기록했다.

엘리옷·와일 인사부장은 "로드리게스"는 아직도 메이리리그 3루수 가운데 가장 훌륭한 3루수"라고 칭찬했다.

블루제이스의 내년봄 스케줄은 3월8일 첫시범경기로 시작된다.

한편 블루제이스와 신경전을 벌이는 최동원은 아직도 미정상태에 있으나 이미 블루제이스측은내년 정규멤버에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에서의 병역문제도 해결, 동팀으로 오게될 가능성이 짙다.

컴퓨터 강좌 취소

28일에서 내년으로

한인컴퓨터회는 오는 28일의 온타리오교육회관에서 행하려던 컴퓨터 강좌를 취소, 다음 기회로 연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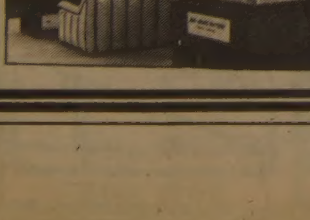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 HOUSE

● 사진 액자 전문
● 동양화 취급
● 유화. 초상화
● CUSTOM PAINTING
● CLEANING & RESTORING



1286 WESTON RD.
(에그린톤 × 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 환

도매상에의 초대
—AN INVITATION TO ALL THE RETAILERS—
★소매업자만 거래함★
우리 도매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상품이 진열돼 있읍니다.
기프트, 노블티, 사진기구, 필름, 은(銀)장식기구, 비데오, 선물용품등.

PRUDENTIAL DISTRIBUTORS
1377 DUFFERIN ST. TOR. M6H 4C7
(Just North of Dupont)
☎ : 536-1131
영업시간 : 월~금 9시~하오5시30분(토, 일요일 휴업)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샵·라이트 65개상점 폐쇄

6백여 종업원해고, 년3백만불적자

온타리오주에 65개의 상점을 소유하고 있는 캐탈로그 체인스토어 샵·라이트가 내년 1월 30일부로문을 닫으며, 6백여명의 종업원은 직장을 잃게 된다.

이 캐탈로그·체인스토아를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의 백화점 기업 헌슨즈·베이사는 그동안 년간 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적자운영을 못면할 것 같아 문을 닫는다고 17일 에반스 사장이 말했다.

"종업원중 일부는 베이백화점에 흡수될 것이고 나머지 종업원들에도 다음기회에 우선권을 주겠다" 고 에반스 사장은 말했다.

샵·라이트의 물품 교환 등은 베이백화점에서 앞으로 취급한다.

샵·라이트의 직원들은 16주전 통고를 받은 후 자동 해고된다.

그동안 적자개선책을 모색해온 에반스사장은 이 체인스토아를 캐나다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나 최근의 금리수준으로는 확장이 불가능, 이같은 폐쇄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샵·라이트의 폐쇄로 헌슨즈·베이사는 8백만달러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폐쇄로 캐나다 전국에 200여개, 미국에 약90개의 캐탈로그체인스토아를 소유한 경쟁자 컨슈머·디스트리뷰터사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72년 4개의 캐탈로그스토아로 출발한 샵·라이트사는 3년만에 근 60개로 확장했었다.

캐나다금리 미영향권 못벗어나

독자적 저금리정책은 자본유출 초래

캐나다의 금융정책이 과연 미국금융정책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2주간 캐나다의금리는 계속 떨어졌으나, 아직 미국 금리 하강에 발맞춘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들어 캐나다의 단기금리는 미국보다 약4%높은 수준을 유지, 역사상최고의 폭을 기록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나친긴축금리정책이었다고 비난했다.

연방정부는 고금리에 시달려온 농부, 중소기업가, 주택소유주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금리정책은 미국의 추세를 좇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맥키건 연방재무장관은 지난주 예산백서를 발표,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 지지 않는한 독자적 금리 정책은 펼 수 없다"고한 것은 결코 캐나다의 금리가 미국의 영향권을 못 벗어남을 인정한 좋은 예이다.

즉 연방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에 상관없이 저금리정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만 가중되고, 달러가치가 하락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정부가 생각하듯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반론을 편다.

전 재무장관 월터·고든씨는 지난 6년간 고금리로 인한 긴축통화정책이인 플레이션율을 7.5% 에서 12.7%로 끌어올렸다면서 "이제 우리도 뭔가 다른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 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의 제랄드·부이 총재는 이에대해 캐나다가 독자적 저금리정책을 쓸 경우오히려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자율이높은 미국으로 자본을 유출시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달러가치가 하락된다고 반박했다.

보통 달러가치가 하락되면 수입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주가 받는 임금인상에의 압력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수입상품과 경쟁하는 국내생산품의 제조비도 따라 오르게 돼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전문가인 토마스·맥스웰 씨와 윌리엄·엠피씨의 분석에 따르면, 캐네디언 달러의 가치가 3센트 떨어질 때마다 인플레이션율이 1% 증가된다고 밝혔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최승락 외환은행장 토론토 도착

◇최승낙 외환은행장

최승락 캐나다 외환은행장이 18일 부임했다.

지금까지 로스엔젤레스 은행장으로 근무했던 최은행장은 신체검사등 캐나다 입국수속관계로 부임이지연됐다.

이장우 전 캐나다외환은행장은 로스엔젤레스 은행장으로 이미 전임했다.

교 민 동 정

◆정승규(록키모피 대표) : 오는 21일 하오1시 벧엘교회에서 최상봉 목사 주례로 결혼한다. 이제야 총각 신세를 면하게 됐다고 얼굴에 함박웃음이 활짝. 신부는 박수진양.

◆이승우(전 언론인, 종교설교가)=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호노룰루등주요도시 한인성당의 신앙지도차 미국순방중 지난16일~18일 토론토에 들러 좌담, 강좌등을 통해 성경에 입각한 신앙쇄신을 역설했다. 17일밤은 백용빈씨(선·라이프 보험회사 근무)댁에 모인 20여명에게 3시간반에 걸쳐 종교강의를하고 18일밤 뉴욕으로 떠났다. 이씨을 한국 가톨릭계에서 성령쇄신운동 지도자중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구독은 533 2361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⑥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

부산과 캔두원자로로 향해

◇9월29일

수상 방한일정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스케줄이 하루종일 빈틈없이 짜여있어서 아침일찍부터 서둘러서 6시출발 버스 두대로 나누어서 KBS로 향했다.

20분정도 달렸을까 동료들이 궁금한지 KBS까진 얼마나 더 달려야 되느냐고 물어본다. 나는 옛날 KBS의 남산만 생각하고, 이제 다 왔을거라고 대답했는데도 차는 계속 달려서 한강다리를 지나고 여의도 공항쪽으로 달린다. 거기엔 군인들의 텐트막사가 수백개 펼쳐있었으며, 확성기의 스피커가 울리고 아침부터 행진연습에 열중이다. 대형아치, 애드벌룬, 프랑카드등 행사는 어느때보다 대대적인것같다. 나는 속으로 「국군의 날」예행연습도 볼겸 시내관광을 하나보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방송공사」에 도착했다고 한다.

8시부터 우주중계로 캐나다 헌법개정에 대한 수상의 연설과 기자질문이있을 예정이다.

우리 시간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방송국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모두들 그 규모에 놀랐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상이 보이지 않자, 오늘사회를 맡은 기자회장인 「짐」이 기자들의 질문받겠다고 장난말을 한다. 지꿋은 한 기자녀석이 일어나서, "회장께선 어제밤에 어디서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발언. 「짐」은 도둑이 제발저리는 격으로 얼굴이 빨개져서어쩔줄 몰라하다가 거기에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고 당신은 간밤에 무엇을 했는지 먼저 밝혀달라고 역습했다.

수상은 도착즉시 분장실로 들러 간단히 이발사가 머리를 손본뒤, TV 카메라앞에 앉아있다. 시종 침울하고 밝지 않은 표정이다. 모두들 수상이 출발서 지금까지 이처럼 어두운표정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뭔가 여러가지로 이상하다고들 했다.

TV중계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은 국제전화통으로 달려간다.

나는 토론토 한국일보를 불러 그동안의 소식과 헌법개정에 관한 수상기자회견소식을 전했다.

수상보좌관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들 나오라고 독촉했다. 수상차를 바싹 뒤따랐다. 경찰의 모터싸이클의 컴보이를 받으면서신촌 공군특별기지로 달린다. 수상이 탄 승용차는 마구잡 달리지만 우리가 탄 마이크로 버스는 속력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 앞차와 거리는 보이지 않을만큼멀어졌다. 옆 보좌관은 수상과 같은 비행기를 타야되는데, 수상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면 곤란하다면서 운전수에게 독촉을 해달라고 한다.

나는 운전수에게 최대의 속력으로 앞차와 거리를좁혀달라고 부탁했다. 최대의 속력인데도 80km ~100km 를 넘지 못하고 만다. 마치 자동차 경주같다. 시종 나를 바라보는 보좌관은 실망한 얼굴이다. 이게 최대속력이라고 했더니, 「워키토키」로 경찰에게 연락, 수상차의 속력을 줄이면서 신촌에 다달았다. C118 공군 프로펠러 4발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우린 서둘러 탑승을 했다.

내가 막 탑승하려는 순간 경호원이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 패스를 쳐다보면서 한국인이냐고 묻는다. 틀림없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했더니 다시 명단을 들여다 본다.

특별기는 김해를 향해서 날고 있다. 맨앞 조종석바로 뒤 20석이 있고, 맨뒤쪽으로 특별석을 만들어수상과 그 일행의 좌석으로 구분되었다. 이특별기는국무총리전용기라 한다.

나는 수상보좌관과 함께 김해 도착후 헬기탑승분산배치작업을 했다. 헬기는1호부터 6호까지이며, 「폴」번호에 따라 배치했다.

약1시간가량 비행한 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되었다. 김해들에는 벌써 나라이무르익어 누런 빛깔을 띠면서 고개를 숙이고있고, 길가의 감나무들에 주렁주렁 매달려있어 금방이라도 하나를 따서 먹고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가히 고국의 천고마비계절이 그대로 피부에 스며드는것 같다.

글·사진 이태은 특파원

◇청와대에서 트루도수상과의 첫회담을 마친 전대통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담배재를 털고 있다(상). 화난듯하나 실은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 이규현 대사를 불러 "오늘밤 수상과 한잔 하고싶다"는 말을 전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다. 의사가 전해자자 기쁜 표정을 수상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같이 만찬회장을 떠나는 전대통령(하).

기쁜 소리 444-4011

"나"와 "우리"

안 상 엽

"우리아이", "우리 집", "우리나라", "우리 교회"하면 틀림없는 말인데,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 혹은 자기 아내를 "우리 부인"하고 서슴지 않고 부르는 신랑과 신부같은 젊은 어른들을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도록 어색해지며, 심지어 새색시같은 젊은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우리 아빠"라는 말로 표현하는것을 들으면 속이 뒤집히도록 메스껍고 쑥스러워진다.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차라리 "저의 남편",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 "저의 처", 혹은 "내자"라는정도로 말할 수 있다면 상당히 세련되고 교양있는 대화법이라 할 것이다.

특별히 사사로운 관계가 별로 없는 모임이나 회의장에서 "나"와 "우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글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자기의 뜻 때문에 다른 사람의뜻을 짓밟고, "나"라는 말을 "우리"라는 말로 사용함으로 남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혼란을 만드는 일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나"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이해, 자기 인격, 자기 양심등, 자기에게 속하는것이다. 자기 남편이 "우리 아빠"가 될 수 없고, 자기아내가 "우리 부인"이 될 수 없음같이, "나의 의견"이 "우리 의견"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뚜렷한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신앙과 양심이 뚜렷하지 못하면서 "우리"라는 속에서 동정을 받아보려는 사람은 가장 세련되지 못한 형식의 사람일 것이다.

스스로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남의 사랑으로 흉내를 내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까지 인용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가될 것이다. 심는 자 따로 있고, 열매를 따는 자 따로 있다면, 경제학상으로 가장무서운 인권침해라 볼 것이다. "나"라는 기본이 분명할때 "우리"라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속에서 "나"를 항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존엄하게 아끼고, 숨김없이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밥통을 옆구리에 차고 문전걸식을 바쁘게 하는 "거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모든 것이 "나"라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밈이 가장 없는 사람이다. 아마 부자의 문간에서 개에게 핥기우며, 부스러기를 얻어 먹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의 자세일 것이다. 그는 "나"를 "우리"속에나,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무리를 휘젓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백만대군"이라는 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소총을 든 졸병 하나 하나가 용감하고 충성스러워야진짜 무서운 "우리 백만대군"이 될 수 있고, 하나 하나의 식구가 건실할 때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 말할 수 있고, 한국인 하나 하나가 욕되지 않고 형제를 해치지 않을때 "우리 한국인"이라는 말이 각자의 입에서 자신있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의무와 관계되었고, "우리"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나"라는 각자가 총을 든 군인같이자기 의무를 잘 수행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온다. 면류관부터 쓰고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은 각자인"나"이지"우리"가 아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나"가 충실히 뭉칠때 "우리"가 있을 것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단 편>

모 래 성 ⑧

박 성 민 (문협회원)

그날 기영이 변소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식이 녀석이 애들을 한 무리 데리고 와서 기영을 놀려댔다.

"기영이 아버지는 똥 퍼요, 기영이도 똥 퍼요, 똥 퍼…"

곡조까지 붙여서 놀려대던 애들은 대꾸도 없이 걸레질만 하는 기영에게 이내 싫증을 느끼곤 가버렸다. 애들이 가고난 다음에 손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뺨을 어루만지며, 악취와 싸우며 걸레질을 하고 있을때 얄밉게도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현정이가 왔다.

"기영아! 아프지 않니?"

기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퍼렇게 자국난 뺨이 그때까지도 얼얼거렸다.

"기영아! 미안해, 나때문에… 미안해…"

현정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때서야 까닭 모를 눈물이 주체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기영은 현정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자꾸 억누르려면 억누를수록 눈물은 쏟아져 나왔다. 선생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코피까지 흘리면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똥을 푼다는 놀림도 선생의 아픈 매질도 하나도 서럽지 않은데,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렸다. 고개를 돌린 기영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꺼져! 얼른 안꺼질래? 나는 네가 보기 싫단 말이야. 괜히 집에 돈 좀 있다고 재는 네가 싫단 말이야…"

"미안해 기영아…"

현정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번아고 되풀이하고 선돌아서 가버렸다. 그녀도 끝내는 울고 마는지 조그만 어깨를 심하게 들먹거렸다. 기영은 그런 현정이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변소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곤 태어나고선 처음으로 서럽게, 아주 서럽게 닫힌 문을 두들기며 울었다.

벽에는 며칠전 기영이 주머니칼로 빡빡 긁어버린 자국이 남아있었다.

"기영이 새끼는 현정이의 신랑이다. 둘이서 뭐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기영은 그때도 모르고 있었지만 현정이와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고,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을 것같았다. 그 밑에 기영이 써놓았던 연필자국의 낙서는 아직도 선명했다.

"동식이 자지는 말자지다."

기영은 변소바닥에다 침을 뱉았다. 입안이 찢어졌는지 피가 섞여서 나왔다. 그것을 발로 뭉개버리곤 기영은 부서져라 발로 문을 차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 이후로 선생의 특별한 배려로 현정이는 기영과 멀리 떨어져 앉게 되었다. 그것은 냄새와 싸우며 변소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벌칙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기영은 현정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그럴 필요조차 없게 되어버렸다. 그의 한달이라는 청소기간을 반도 못채웠을 무렵, 현정이는 시내 한복판의, 아침이면 자가용이 줄을 선다는 사립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애들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정이가 전학을 가버린 날, 기영은 또 한번 동식이와 학교 뒷산에서 대판 싸웠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영은 또다시 코피를 흘렸고, 양쪽 눈밑이 시퍼렇게 부었다. 다만 저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영은 코피를 흘렸어도 울지 않았고, 계속 달라붙어서 뒹굴었기 때문에 동식이 녀석의 옷에도 피가 묻었고, 그래 귀찮아한 나머지 그가 도망을 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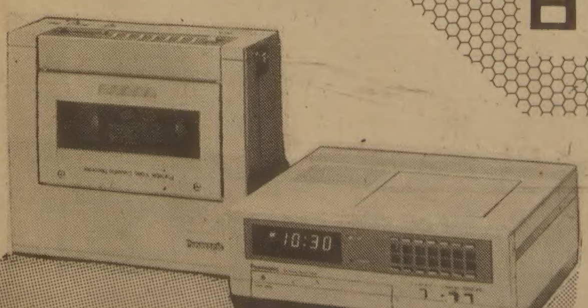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동식이 녀석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기영은 한동안 학교 뒷산에 앉아있었다. 동식이의 모습마저 사라진 텅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그녀가 전학을 간 후, 기영은 가끔 현정이를 동네 골목에서 보았다. 그녀는 항상 차안에 있었고, 기영은 놀다 말고 현정이네 차가 보이면 골목에 피해 숨었다. 차창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노란 교복과 모자가 정말 어울린다고 기영은 생각했다. 그 황금처럼 빛나는 노란 빛깔은 기영에겐 너무 눈이 부신 빛깔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현정이네는 이사를 갔다. 동네 아줌마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정아버지의 사업이 잘되어서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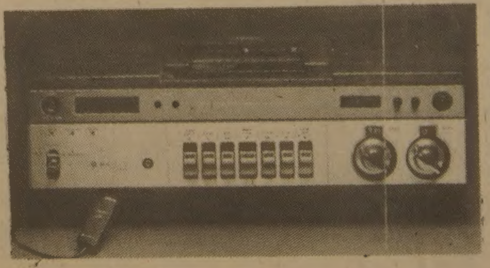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비데오 테프 세일"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 and Add-on Reco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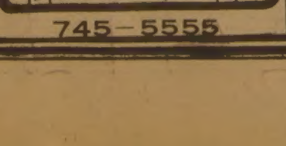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 799.00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 : 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저 미 根性 아무도 못말려

「스파이더맨」댄 구드윈 또 百層빌딩 기어올라

◆36층에서도 소방대원들이 막대기로 구드윈의 등반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UPI〉

캘리포녀 산라과엘 출신 스턴트맨 댄 구드윈(25세)은 11일 시카고의 존 행콕센트 건물(1백층, 1천1백7피트)을 스파이더맨 식으로 기어오르는데 성공했다.

구드윈은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고 막대기로 저지하는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약5시간만에 빌딩 정복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정상에 도착하자 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안전장치없이 고층건물을 오른 혐의로 입건, 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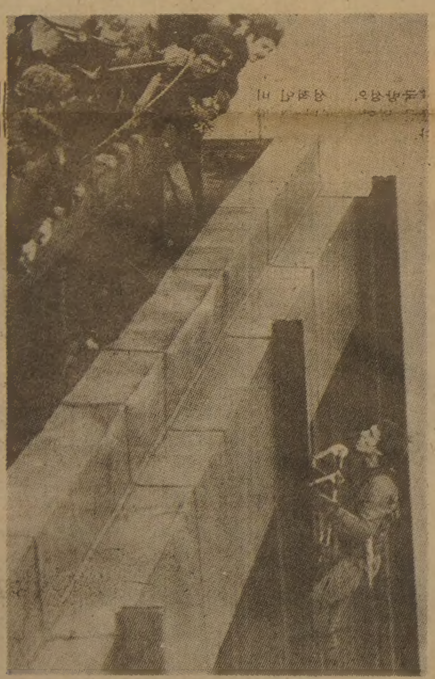
「스파이더 맨」이라고 불리우는 구드윈은 이날 37층 빌딩에서 제인 번 시카고 시장과 면담까지 한후 빌딩을 기어올라갔다.

구드윈은 지난 1일에도 이 빌딩을 오르려다가 실패한바 있고, 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에도 1백10층 시어즈타워를 오른바 있다.

◆소방대는 구드윈의 등반을 방해하기 위해 호스로 물을 끼얹었다. 〈AP〉

◆90층까지 오른 구드윈은 잠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해주는 여유도 보였다. 〈UPI〉

◆안전장치없이 고층건물을 오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구두윈. 〈UPI〉



◆정상정복을 3피트 앞둔 구두윈. 〈AP〉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결혼축하

신랑 : 정승규씨
신부 : 박수진양
때 : 21일(토)하오1시
장소 : 벧엘교회(395 Old Yonge St)
주례 : 최상봉 목사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문화의 충격, 언어장애, 애정말동, 생활고, 직장 슈퍼바이저의 눈치등 이질 문화권속에 던져진 초기 이민생활은 고달프기만하다。이생각 저생각하다 잠을 설치고 뜬눈으로 보내신 이민초년생들도 많이 계시리라。

우리말에 「엎치락 뒤치락하다 한잠도 못잤다」는 말이있다。미국인들은 독특한 표현으로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 이라고한다。이때 toss는 던지다, 뒤치락거리다의 뜻이니 짐작이가는 얘기다。

반대로 「곤하게 잤다」는 얘기는 I had a sound sleep. 혹은 I slept soundly. 라고 얘기한다。

A : You look terrible.
B : I didn't sleep a wink last night.
A : Did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B : Yes. I was thinking about my English exam.
A : I'm sure you'll pass.
B : I hope you're right.
A : 안색이 형편없군요。
B : 지난밤 한잠도 못 잤읍니다。
A :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B : 네。영어시험에 대해 생각했었죠。
A : 전 당신이 합격하리라 확신합니다。
B : 그러길 저도 바라겠어요。

※주 wink는 눈을 깜박하는 것이니, 한잠도 못잤다는 뜻이다。
exam. : 시험, examination의 준말。
last night : 회화에서는 단어끝의 t를 파열하지 않는다。「래스트나이트」가 아니고 「래쓰나잇」

본 칼람 담당자의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너더·뉴스,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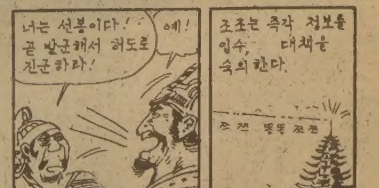
구입처 :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1, 2, 3권
책、카세트、비디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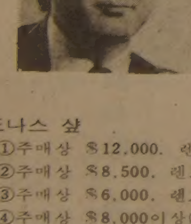
三國志 257

글·高羽榮·그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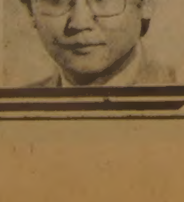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배 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김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김장세일
◆정씨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아래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세일 합니다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기 간 : 11월16 일~11월29일까지

배 추 : $6.50—50파운드(1BOX)
무 : $6.50—50파운드(1BAG)
총각무 : $7.50—30파운드(1BOX)

「豊年」마무리가 늦다

穀倉 金堤 수매량도 昨年보다 줄어

수매초기에다 날씨가 순조롭지못해 金堤平野의 추곡수매는 예년보다늦어지고있다。【金堤郡竹山面連浦추곡수매현장에서 鄭在斗기자찍음】

秋穀收買 늑장부려

1等品 10% 늘었으나 濕氣로 脫穀못해

【金堤=林鍾乾기자】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金堤平野의 秋穀收買는 마냥 늑장을 부리고있다。베어논지 한달이 다된 볏단이 논두렁에 서있거나 논바닥에 드러누워 있다。벼가말라 탈곡을 하려하면 날씨가 질척거려 탈곡이 늦어졌다는 농협직원의 설명이지만 왠지 탈곡할 의욕마저 잃어버린 농민들의 심사를 보는것 같았다。

〃農資 갚고나면 生活費·營農費 걱정〃

金堤郡농협이 올해 수매할 秋穀물량은 46만2천가마로 배정된 收買자금은 1백25억원。흉년이었던 작년에도 50만가마를 수매했는데 풍년인 올해는 작년만도 못한 풍년속의 흉년이었다。秋穀收買가 개시된지 닷새째인 10일현재 金堤郡농협의 수매량은 2만가마、방출된 수매자금은 5억원에 불과했다。

20일께나 가야 본격적인수매가 이뤄질것 같다는 농협직원의 말이었다。

金堤郡 金溝面농협창고에서 지난10일 하루동안 수매된 물량은 6백가마。이중65%가 1등짜리로 예년보다10%정도 많아졌다고 검사원任昌海씨(27)는 말했다。그러나 이날 40가마를 수매했다는 洪麒씨(49·金溝面用福里)는 40가마중 37가마가 1등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쁜 얼굴이 아니었다。

『수매자금으로 1백4만원을 받았지요。농협빚을 갚고나니 남는돈이 10만여원밖에 안돼요』그는 목청을 돋우기 시작했다。그는 짓는논은 6천평이라했다。올해 한필지(1천2백평)에 통일벼를심어 몽땅수매를 했음에도 10만원밖에 안남은것이못내 허전한 것이다。나머지 4천8백평에 심은 일반벼가 출하아 2백가마 (쌀로는 1백가마 정도)이고 요즘 쌀값시세로 약5백만원인데 여기서 농약과 비료값 인건비등을 제하고나면 4백만원이 될까말까라고 했다。이쌀로 그는 다음한해를 노부모및 5남매와 함께 먹고살아야하며 다음해의 영농비도 일부 대야한다。위로 3자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뒤집일을 돕고있고 고등학교와중학교에 하나씩 다니는데 이들역시 대학보낼 엄두도 없다고했다。

金堤평야에서도 가장 들이넓은 竹山面連浦里 連浦창고에서 만난 金永씨(56·竹山面連浦里276)도 처지는비슷했다。金씨는 5천평의 논 가운데서 1천5백평에 통일벼를 심었다고했다。소출된 통일벼 60가마를 모두 수매한 돈이 1백50만원。이중에서 농협에서 빌어쓴 농약값 40만원、일반영농융자금 30만원에 이자를 더한 36만원등 약80만원은 갚고나면 70만원이 남지만 농지세 水稅로 16가마를 더 내야하기 때문에 남는돈은 20~30만원밖에 안된다고했다。이돈은 혼자부지 녹아나버리게 마련이어서 金씨역시 나머지 3천5백평에서 수확한 일반미 70가마로 아내와 3자녀와함께 1년을 살아야한다。그는 중학교다니는 아들녀석만은 시골학교라지만 전체1등을해 무슨 수로든 대학을 보내려고했으나 학비가 1년에 2~3백만원이든다니 다른궁리를 해야겠다면서 시무룩한모습이었다。

콜럼비아號 오늘아침歸還

電池고장不拘 實驗90%완수

6시22분豫定

〃계획대로 닷새滯空가능성도〃

【케이프카나베랄13日UPI·AP=聯】2차우주여행에 나선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는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연료전지1개가 발사6시간만에 고장을일으킴에 따라 당초 5일간으로 예정된 임무를 2일간으로단축하고 14일 밤9시22분 (한국시간 15일상오6시22분) 에드워즈공군기지로 귀환한다고 美항공우주국(NASA)이 13일 발표했다。

존슨우주센터는 이날 짤막한 발표문을 통해『지상통제본부가 콜럼비아호에있는 3개의 연료전지가운데 하나가 고장을 일으킴에따라 콜럼비아호의 임무를 최소한으로줄이기로 결정, 조기귀환명령을 내렸다』고밝히고 이같은 일정단축에도 불구하고 콜럼비아호가 새 로보트팔작동실험등 당초계획했던 실험의90%를 성공리에 완수할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의 연료전지 가운데 하나는 고장이 났지만 나머지 2개의 성능은『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고 이들2개의 연료전지가 계속 양호한 성능을 발휘할 경우 5일간의 우주비행강행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밝혔다。

또한 나사의 닐·허친슨비행국장도 콜럼비아호의 비행계속여부가 1日베이스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당초계획했던 5일간의 비행강행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基地 귀환 짙은구름끼어 支障

【휴스턴13日UPI=聯】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 귀환예정지인 미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공군기지에 짙은구름이 끼어있어 예정대로 14일 이곳으로 귀환하는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미공군기상대장이 13일 밝혔다。

탄광 大單位化 추진

國會 공동選炭시설도 建議키로

국회는 앞으로 低質炭생산을막고 탄광의 採算性향상및 광부들의 賃金인상등을 위해 零細탄광의 大單位化를 적극 추진키로하는한편 정부가共同選炭시설을 마련해줄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4일동안 江原道와 忠南·慶北의 炭鑛현장을 살펴본국회상공위 低質炭문제 小委는 오는16일 모임을갖고 현지시찰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취합、이러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와함께 産地驛頭의 貯炭시설확충、選炭과 採掘시설의 기계화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小委는 또▲低質炭활용방안▲炭質등급의 재조정 ▲鑛夫들의 복지시설및 賃金인상방안▲부족 노동력의 확보방안을마련하는등 원활한 石炭수급대책을 세워야만 低質炭파동을 사전에 막을수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절한 석탄정책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東京-北京항로 日、二元化추진

日=서울통과、中共=平壤통과

【東京14日=聯】일본은 한반도상공을 통과하는 일·중공항공노선과 관련 일본측이 東京-서울-北京의 한반도 남쪽항로를、中共측이 北京-平壤-東京의 북쪽항로를 동시에 개설하도록 적극추진할 방침인것으로 14일보도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외무성과 운수성이 내년중에라도 남북항공로를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한국、일본、北傀、中共등 관계4국간의 국교문제때문에 정부간 협정대신관계항공회사의 민간항공협정으로 이문제를 처리할 생각인것으로 보인다。

일정부는 최근 남북한이東京-北京항공노선에 각각 영공개방을 표명하고있어 이같은 남북항로의 개설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상공을 통과할 경우 東京-北京간의 비행시간은 지금의 4시간30분에서 1시간정도가 단축된다。

慶北、12년만에 綜合優勝

釜山-서울 大驛傳경주

2위 서울、3위 京畿

493·4km 25시간6분5초 최우수상에 慶北·朴元根선수

지난9일 釜山시청앞을 출발、1천2백여리 493·4km를 치달려온 제27회 京釜대역전 경주대회는 慶北이 69년 15회대회서 우승한이후 12년만에 패권을 되찾은가운데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종착점에 도착 6일간의 레이스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3구간까지 선두를 달리며 무적을 과시했던 慶北은 중반이후 레이스에 차질을 일으켰고 최종구간인 天安-서울간에서 한때 서울에 종합선두자리를 위협당했으나 초반의 리드를 끝까지지켜 25시간06분05초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은 天安-서울간 최종구간서 沈鉉澤柳文鍾의 분투로 선두에 나선후 계속 선두자리를 견지、4시간44분27초로 국회의사당앞에 1위로 골인했으며 전날까지 京畿와 치열하게 다투었던 1초차의 경쟁에서 벗어나 25시간10분05초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京畿는 초반 朴京德의 호조로 서울과 선두다툼을벌였으나 중반레이스에서 부진、25시간12분21초로 3위에 머물렀고、釜山은 25시간48분55초로 4위、慶南은 26시간06분58초로 5위、全南은 26시간19분33초로 6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대회서 慶北의朴元根은 최우수선수상、京畿의 朴京德은 우수선수상、서울의 沈鉉澤이 최우수신인상을 각각획득했다。최종일레이스에서는 소구간신기록 9개、구간신기록 1개가 작성되어 이번대회에서는 모두 소구간신기록 18개、구간신기록 3개가 수립되었다。이날 시상식은 한국일보 12층 강당에서 하오4시30분 많은 육상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慶北이 覇權탈환하는 순간　종합우승을 차지한慶北의 金鍾允이 종착점에 골인하고있다。

事業場에 安全保健委

民正、法案마련 災害防止소홀 業主처벌

民正黨은 14일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産業安全保健法을 의원立法으로成案、16일 국회에 제출한다。

金溱의원등 民正黨 소속의원全員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全文48條로된 이法案의주요골자는▲有害위험성이 있는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하고 모든사업장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災害예방활동을 활성화 하며▲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및 근로자의 기본적의무를 명시함으로써 勞使모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보건사업의 성과를 올린다는것등이다。

이 법안은 또事業主가 위험예방조치로▲기계、기구、기타설비에의한 위험、폭발성 發火性및引火性물질등에 의한 위험、전기열 기타 에너지의위험을 예방하기위해 필요한조치를 강구해야하며▲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있는 장소및 土砂붕괴할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위험을방지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를 강구해야하고▲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할수있다。

社会漫評

되로주고…

青瓦臺 秘書室과 監査院도服務선서

모든 공무원의 服務宣誓방침에 따라 교통부에 이어 青瓦臺비서실과감사원이 14일 복무선서식을 가졌다。

地平線

서울 江西區에 사는 Y씨。평소에는 매달 2만원쯤의 전화요금을 물어 왔는데 지난 7월 난데없이 33만원의 고지서가 나왔다。Y씨는 이의를 제기했다。고쳐 나온 금액은 1만9천원이었다。한번이라도 전화요금관계로 전화국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일이 그토록 수월하게 풀린 것이 희한할지도 모른다。▼다음은 서울西大門區에 사는 K씨의 경우。K씨네 상수도는 加壓펌프의 물이 아닌데 구청에서는 加壓料를 따로 받아간다。K씨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조사결과 K씨집은 일반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加壓料징수는 부과 때의 착오로 밝혀졌다。세금이나 공공요금관계로 관청을 드나 들어본 사람이라면、이젠 민원사무가 그만큼 나아졌나보다 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이 두가지 속시원한 사례에서 빠뜨린 것은 중앙청에 자리잡은 政府合同民願室의 존재다。合同民願室이 개입하니까『전화요금은 컴퓨터로계산하므로 어찌할수없다』는따위 퉁명스런 핀잔이 잠잠해진다。合同民願室이 나서니까、몇차례 시정요구를 아랑곳 않던 구청에서 자기네 실수를 순순하게 인정한다。合同民願室의 위력도 대단하거니와 맡은바 구실 또한 크다。▼어제(14일)로써 合同民願室은 창설 1주년을 맞았다。그사이 하루 평균3백50건、통틀어 9만2천건이 넘는 민원을접수하여63%를、민원인이 바라는대로 해결했다。이 가운데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이관된것이 3만3천건이며、신문·방송에 반영된 민원을 처리한 것이 1천7백건에 달한다。파견근무자를 합쳐 고작80명의 合同民願室 인력을 생각하면、버찬 업무량이 아닐수없다。▼하지만、合同民願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으로、그토록 많은 민원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종국적으로는合同民願室로 밀려든다는 사실은 한번 더 눈여겨 보아야 할것같다。여기 접수된민원은 1차적인 것이 아니요、거개가 陳情의 성격을 띤 것이라 보아야 한다。일선관서의 민원업무가 아직도 그렇게 많은「民怨」을 발생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合同民願室에 거는기대는 그래서 더 크다。낱낱의 민원을 해결하는 구실도 크지만、「民怨」의 유형을 밝혀 그素地를 없애는 기능을 더 높여가야한다고 보는 것이다。그리고 合同民願室과 같은기능은 하급관서에까지 확대되었으면 싶다。일선에서 생긴「民怨」은 大上級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손쉽고、서울로「直訴」하는 수고도 덜어줄테니 말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서 울 식 품

13일(금) 부터 효력

배추 $7.50(박스당) ※선물을 드리는 고로 무·배추의 실제가격은 박스당 $5.00정도에 불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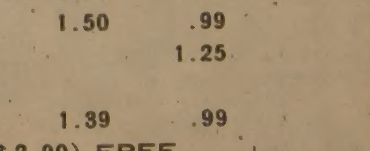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최근일자 기입되어있음		15.00
●오징어젓 Lb.(특별가격)		.80
●김(100장)	19.99	13.90
●강냉이차(500 GR.)	1.69	1.49
●보 리 차(500GR.)	1.69	1.49

	REG.	SPEC.
●멸 치 젓 Lb.	2.99	1.99
●어리굴젓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찹쌀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다량입하 : 삼양라면, 삼양짜장, 새 칼국수
㉾SALE가격 : 스텐레스 다라이(양품) 다량입하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美, 外交官보호 強化
駐佛대리大使 피습事件 계기로
리비아關聯說도

【파리13日UPI=聯合】美國은13일 크리스천·채프맨 주불미대리대사가 12일 한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총탄세례를 받았고 에이브러햄·캐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재미대표가 번호판없는 한 승용차의 추적을 당한뒤 파리를 비롯한 해외주재 미외교관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우려, 외교관들의 신변을 보호키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미소식통들은 파리주재 미대사관의 경비를 맡고있는 미해병대원들이 최근 대사관당국으로부터 테러공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미대사관출입자들은 사전에 소지품을 검사받고 출입목적에 대해 조사받는다고 말했다.

채프맨 대리대사는 12일아침 자택부근에서 출근키위해 승용차를 타려할때 괴한으로부터 6발의 총탄세례를 받았으나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한편 사이드·하피아나 파리주재 리비아 인민국(대사관)서기는 이날 채프맨 미대리대사에 대한 암살기도에 리비아가 관련됐다는 추장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미국이 리비아를 침공하려는음모를꾸미고있다고비난했다.

"이機의 사우디領空비행 中東지역 緊張高潮우려"
美國務省 대변인

【워싱턴13日AP=聯合】미국은 이스라엘공군기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침범비행이 이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지도 모른다고 13일 경고했다.

딘·피셔 미국무성대변인은 이날 지난 9일에 있었던 이스라엘기의 사우디영공침범사건에 언급, 미국은 그와같은 비행을「묵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아랍國 偵察계속
샤론國防相밝혀 "自衛위해 不可避"

【텔아비브13日AP=聯合】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은 13일 한 방송회견에서 이스라엘공군기들이 이번주 사우디아라비아영공을 침범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이스라엘은 이웃 아랍국가들에 대한 정찰비행을 앞으로도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샤론국방상은 이스라엘라디오의 방송회견을 통해『우리는 미국에대해 이스라엘이 우리자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나는 역내의 모든 인접국가들에대해서도 이 점 분명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샤론국방상은 또『우리는 사우디를 대결국가로 선언했으며 우리가 적대국가에 대처해서 행동할때는 빈틈없이 행동한다』고 밝혔는데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지난 9일 사우디의 타부우크공군기지에서 멀지 않은 서북부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우디측 주장을 이스라엘관리로서는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샤론국방상은『아랍국가인 한 적대국이 최신예 이동무기들로 장비를 갖췄다』고 단정하면서 이스라엘은 국경너머에서의 동태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 지난10월 이스라엘공군기들이 과거에도 사우디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해왔다고 시인했다.

◇「로버트팔」을 내밀고 선회중인 콜럼비아號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지구궤도를 선회하는도중 화물칸 뒤부분을 촬영한 사진。우측에 원격조종장치 (로버트팔)가 보인다。콜럼비아호는 거꾸로된 상태로 선회하고있으며 사진위쪽에 나타난 흰부분이 지구。【휴스턴13日AP電送=聯合】

◇콜럼비아號 船室의 두 宇宙人 미국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두우주인조·엥글과 리처드·트룰리가 궤도선회 2일째인 13일 선실안에서 각종 우주실험을 하고있다。【휴스턴13日UPI電送=聯合】

로보트팔 實驗성공
宇宙空間번개 촬영
콜럼비아號

【케이프 카나베랄(美플로리다州)13日UPI·AP=聯合】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 조종사들은 13일(현지시간)이번 2차여행의 가장 큰 임무인「로보트팔」작동실험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한편 인류최초로 우주공간에서 번개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조·엥글과 리처드·트룰리 두조종사는 이날 17번째 궤도선회도중 앞으로 인공위성의 배치와 회수에 사용하게 될 8천만달러상당의「로보트팔」실험을 최초로 수행했다.

조종사 트룰리는 마치 인간의 팔과 기능이 흡사한「로보트팔」을 작동시킨후『멋지다』는 환성을 터뜨리면서『모의연습때보다 훨씬 작동이 부드러우며 진동도 없었다』고 감탄을 연발했다.

이 로보트팔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는 팔의 작동광경과 조종실의 모습을 생생히 비쳐주었다.

또한 휴스턴의 관제소로부터 번개현상을 발견하면 이를 촬영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조종사들은 아프리카상공에 진입할무렵 번개의 촬영에 성공했다.

蘇 비첸스키死亡

【모스크바13日AFP=聯合】소련군기관지「赤星」은 13일 소련공군의 니콜라이·비첸스키장군이「急逝」했다고 보도했다。

「赤星」은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蘇、성공경우革命的 核融合실험실 建設

【모스크바13日UPI=聯合】소련은 태양중심부온도의 5배나 되는 열생산이 가능한 핵융합실험실건설을 시작했다고 소련관영타스통신이 13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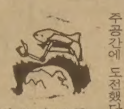
타스통신은 핵융합에 관한 연구가 30년간 계속되어 왔다고 말하고 핵융합연구가 성공할 경우 인류에 앞으로 수백만년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주장했다。

觀光用 헬리콥터 濟州서 처음運航

【濟州=聯合】관광용헬리콥터 비행기가 국내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메아리

로보트 팔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하고 인간의 기계적인 기능을 행하는 기계」。웹스터사전에 나오는 로보트에 관한 설명이다。

인간이 일으킨 산업혁명을 능가할 인조인간에 의한「로보트혁명」이 급격히 진행되고있다。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할 상상못할 일들이 차례로 현실화 되어간다。선진산업국에선 산업역군의 자리를 로보트가 대신한다。컴퓨터의 조종으로 육체노동만이 아니라 두뇌적인 노동까지 맡고 나섰다。

휴가나 파업을 모르며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것이「로보트 기능공」이다。미국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자동차공장에선 로보트가 뚜벅뚜벅 걸어 다니며 차체 안팎의 용접일을 한다。

「下人로보트」도 나왔다。병원이나 큰 회사에서 실용화 되어 식사준비,청소,우편배달등 충실한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있다。방범로보트는 도둑을 붙잡는다。괴한이 침입하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집게손」으로 꼭 잡아 둔다。그런가 하면 폭력방지에 한몫을 거든다。폭탄과 지뢰를 막아내며「기계팔」로 권총을 쏘거나, 최루탄을 던진다。

로보트가 인간과 다르다면 상상력과 감정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공상과학영화「하트비프」에선 감정까지 표현하며 미녀와 열렬한 포옹을 하는 장면도 보인다。인간은 자꾸 기계화되어 가고 거꾸로 기계가 인간화 되어 가는것 같아 묘한 갈등마저 느끼게 된 세상이 온것이다。

미국상무성이 펴낸 산업총람은 앞으로 85년까지 유망성장산업으로 로보트산업을 첫째로 꼽았다。이제 로보트가 우주인과 함께 무한한 우주공간에 도전했다。

오늘아침 돌아온 2차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에서 로보트팔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두우주비행사는『멋지다』고 환성을 터뜨렸다。캐나다에서만든 이 로보트팔은 우주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지구촌에 알려 왔다。

한번에 29·5톤의 화물을 들어올릴 거대한 능력을 지닌 로보트 팔은 앞으로 우주공간에 화물을 실어 날라 배치하며「꿈의 우주촌」을 건설하게 된다。또한 허공에 버려진 고장난 통신·기상위성을 회수하고 수리도 맡는다。

87년께 우주공장이 세워질 전망은 확실해 졌다。미국의 제약회사가 이미「우주개업」을 서두르고 있는중이다。우주산업은 결국 로보트산업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컬러TV 89萬臺 출고 冷藏器 51만대로 好況
―올해 9개월간 家電業界조사―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중 컬러TV·冷藏器·輕油등의 소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승용차와 청량음료·휘발유·설탕등은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든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1월~9월까지 컬러TV 출고량은 89만7천6백11대로 가전업계의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 冷藏器는 이기간중 51만5천6백27대가 팔려 전년동기의 46만7백51대보다 19·1%가 증가했고 輕油도 3백47만7천7백37㎘가 출고돼 2%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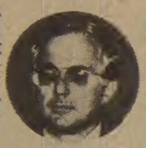
반면에 승용차는 3만6천6백38대가 출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천6백8대보다 9백70대가 줄어들었고 청량음료도 지난해 같은기간의 97·3%인 11억5천9백65만6천병이 팔리는데 그쳤다。

또한 휘발유는 63만2천9백24㎘로 전년동기대비 80·9%에 불과했고 설탕도 27만3백12톤이 소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소비량 35만5천6백87톤의 75·9%에 그쳤다。

이처럼 컬러TV·冷藏器·輕油소비는 늘어난반면 청량음료, 승용차·휘발유·설탕등의 소비가 줄어든것은 각 가정이 불황을 이기기위해 실속있는 내구성가전제품은 구입하되 불필요하거나 사치성품목구입은 될수있는한 억제했기 때문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엔 千달러 口舌數
日女性誌의 낸시女史인터뷰 謝禮金 말썽
앨런補佐官이 領收…레이건行政府 또困境

◇낸시女史



◇앨런補佐官

【워싱턴14日=曺洪奎특파원】레이건행정부에 구설수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이번에는 돈문제가 걸려있는 색다른 구설수。

리처드·앨런안보담당대통령보좌관은 지난 1월21일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을 치른 그 다음 날 일본잡지「주부의 벗」기자가 퍼스트·레이디 낸시·레이건과 인터뷰한뒤 퍼스트·레이디 앞으로 가는 사례금조로 현금 1천달러를「領收」했다는것이다。

앨런보좌관은 13일 1천달러를「영수」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돈을 적절한 절차를 밟아 국고에 넣을 셈으로 사무실금고에 보관하게 했으나 8개월동안이나 까맣게 잊어버리고있었다고밝혔다。

앨런이 그돈을「영수」한 이유는 일본사람들의「관습」으로는 인터뷰한후에 봉투를 주며 그것을 거절하면 일본기자를 당혹케하게 되므로「영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일본기자들은 이런 일본「관습」에대한 미국기자들의 문의를받고 전직관리에게는 사례금을주나 현직관리에는 주는것이「관습」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스피크스 부대변인과 거겐 언론담당 책임자는 13일 백악관기자 브리핑에서 FBI(미연방수사국)가 이사건을 조사했으나 법규칙에 위배되는점을 발견치는 못했으며 앨런에대한 혐의는 깨끗이 씻어졌다고말했다。하지만 미 법무성은 레이건 대변인들의 말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법무성은 앨런이 어떻게해서 그돈을「영수」했으며 지난 8개월 동안 그 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것。거겐대변인은 필딩 대통령법률고문이 FBI및 법무성과 협의없이 발표문을 작성해서 다소 차질이 생겼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거겐 대변인은 대통령취임식 바로 다음날 어떻게 그런 계제 빨리 낸시여사가 일본잡지 기자와 인터뷰를 할수있었는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고 스피크스부대변인은 회견은 단지 5분동안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앨런 보좌관이 퍼스트·레이디의 인터뷰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백악관대변인이 시인했으나 앨런은 그 회견을 누가 주선했는지는 모르고있다고했다。

그런데 앨런은 인터뷰한 잡지기자및 몇몇 일본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었다。

필딩고문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인터뷰에 대한 사례금을 지불할 의사를 앨런에게 전에 통고했다는 것이며, 앨런은 두비서도 그 현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앨런은『나는 돈을 수락한것은 아니다。나는 그걸 영수했다』면서 이름을 밝히지않는 사람을 지적했다。

낸시여사는 13일 처음으로 일본인이 사례금조로 돈을 내놓았다는것을 알았다고 필딩고문이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13일 텍사스주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내가 아는한 위법의 증거는 없으며 앨런이 그자리에 계속 머무르게된다』고 말했다。

필딩과 거겐은 그돈이 현재의 백악관 지하실사무실로 옮기기전의 구관 사무실금고에서 지난9월중순 발견됐다고 말했으나 누가 그 금고문을 열었으며 돈봉투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누가 그돈의 발견을 FBI에 알렸으며 FBI는 언제 수사를 시작했는가의 기자질문에도 거겐대변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미법무성은 오는 12월말까지에는 이사건에대한 조사를 끝낼수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될지도 모른다는 보도도있다。미국언론은 이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태세를 취하고있어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엿보인다。

외인專用수익증권 3千萬弗완전매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인 3천만달러어치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트러스트와 코리아 트러스트가 외국시장에서 전량매매청약이 완료돼 모두 매진됨으로써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韓國投資信託과 관매대행계약을 맺은CSFB社는 지난 12일런던에서코리아인터내셔널트러스트의 관매계약을 체결했는데 CSFB사는 8개 공동간사들을 통해 이미 1천5백만달러규모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모두 판매키로 했다는 것이다。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Presenting the one and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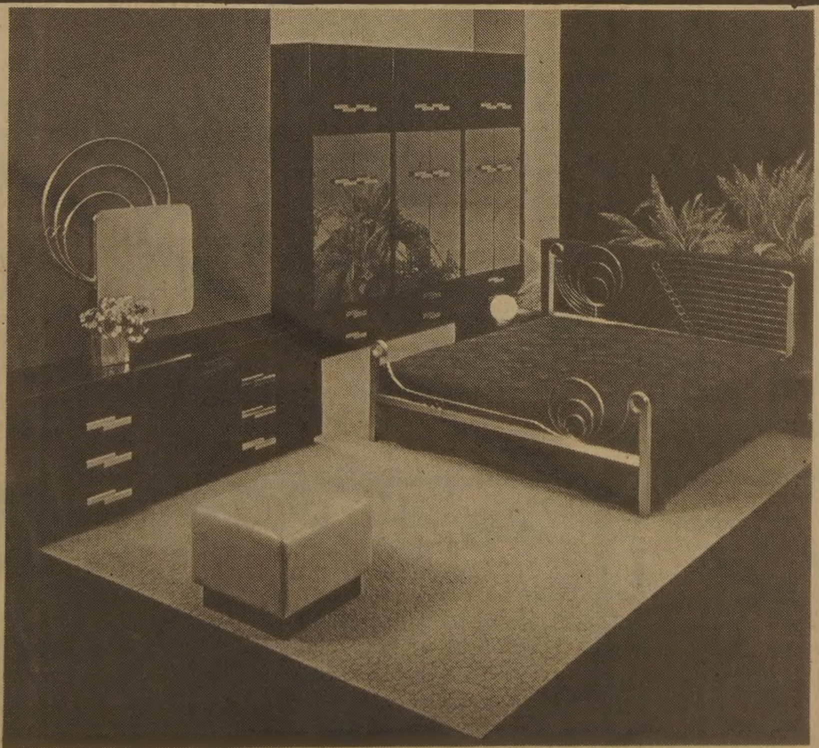
furniture store of our kind in this city. Other fine furniture stores make this claim but we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being truly unique.

Cantu Interiors has painstakingly gathered some of the most innovative home furnishings you'll ever see.
Magnificent traditional settings from some of North America's finest furniture makers.
Breathtaking contemporary pieces from Europe as well as masterful reproductions of European craftsmen.

Together these outstanding pieces create what we think are some of the finest home furnishings ever presented.

Now is the time to discover our one and only furniture store and treat yourself to the finest.

Above illustrated contemporary brass bed, imported from Italy, made of solid brass. Matching mirror available.



- 토론토 최대 가구점 중의 하나(고급수입상)
- 최고의 이태리안 디자이너가 설계 제작된 가구
- 3층건물 전체가 온갖 종류의 가구를 구비한 SPECIAL STORE
- LARGE SELECTION(4000 sq.)
- 아프터 써비스 보장
- 최고급 질을 보장

※뒤에 충분한 파킹장이 있읍니다.

cantú interiors

CANTÚ FURNITURE & INTERIORS LTD.

2562 EGLINTON AVE. W.(에그린톤×킬) TEL: 653-3353~4

10家口중 3家口에 都市가스

低硫黃油공급 85%로 확대

73개邑面에 下水종말처리장

83년엔 쓰레기분리收去 전국 擴大

지역·時間別 소음기준도 제정키로

환경청 環境保全 5개년계획 確定발표

정부는 14일,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중 총1조3천5백60억원 규모의 환경보전부문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계획기간(82년~86년) 중 저유황유의 공급을 현재의22%에서 전체유류소비량의 85%까지로 늘리고 연탄사용률 줄여가는 대신 도시가스보급률을 전체가구의 30%까지로 확대하며 분뇨 종말처리율을 현40·5%선에서 98%까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확정안은 총투자규모를 2조3천3백37억원으로 책정했던 당초안에 비해 대폭 삭감된것인데 이것은 9천4백68억원을 투입, 정유공장에 탈황(脫黃)시설(계획기간중 30만BPCD규모)을 설치하기로 했던 당초안이 저유황유도입을 전제로 백지화 됐기때문이다.

환경청은 이계획을 발표하면서 방대한사업을 제한된재원으로추진해야하는만큼일시에 공해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하천오염방지▲분뇨·쓰레기등생활주변의정화▲산업시설·차량등의 오염방지대책등의 순서로정해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고설명하고 무엇보다 일반국민의 환경문제에대한 인식과 협조를구하는데 커다란 역점을두어사업을 시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부문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대기 현재 서울, 蔚山 지역에 공급되는 저유황벙커C油와 경유 8만4천배럴을 86년까지 35만5천배럴로확대, 전국의 저유황유 공급률을 현재의 22%에서85%로늘린다. 연탄사용률을 줄여가기위해 도시가스를 年6백30만kl까지 확대공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공급을 추진한다.

차량의 배출가스규제항목에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자연부락, 시간별 소음기준과 자동차의 주행(走行)때 소음기준등과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을 신설하며 서울의 고속도로와 철로변에 37km에 이르는 방음벽을 설치한다.

수질 현재 6%선에 머물고있는 전국 하수도 보급률을 계획기간중 25%이상으로 늘리고 서울등 13개대도시, 공단지역에 하수처리장과 73개 읍·면지역에 종말처리시설을 갖춘다.

현재 1일4천3백kl의 처리능력으로 전체수거분뇨의 54%를 종말처리하고있는 전국 40개시의 분뇨종말처리시설을 1일9천2백kl로 늘린다.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주요하천의 상류나 상수원보호지역인 37개읍·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폐기물관리 가정용연료를 연탄에서 점차 도시가스와 LNG로대체, 현재 전체쓰레기의 71%를 차지하는 연탄재를 50%선으로 낮추고 83년초부터 쓰레기분리수거를 전국에 확대실시한다.

10개도시에 폐기물소각처리장을 설치, 1일 2천7백톤을 위생처리토록하고 1일 1백30톤의 용량을갖는 폐수지 재생처리시설 13개를 신설, 현재 58%선에 머물고 있는 재생률을 67%까지 끌어올리고 22개공단에 매립장을 확보, 산업폐기물을 집중관리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통신방송 전용衛星 타당성 조사위發足

국내통신방송을위해 전용통신위성을 보유하는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조사하기위한 통신방송 위성업무 조사위원회가 14일 발족됐다.

체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상공, 문공, 과기처,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등8개관계기관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이위원회는 체신부장관 직속자문기관으로▲국내방송난시청지역의해소▲전국에양질의 방송제공▲한정된 위성궤도의 선점등 통신위성을갖게되는데 따른 기술적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게된다.

國內서 가장즐겨부르는 노래 눈물젖은 豆滿江

MBC調査 드러나

한국인이 가장 즐겨부르는 노래는 金貞九의 「눈물젖은 두만강」으로 나타났다. MBC가 창사2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한국가요 전국대조사」에서 즐겨부르는노래 2위는 白年雪의 「나그네 설움」, 3위는 韓敬愛의 「옛시인의 노래」로 밝혀졌다.

이조사는 가장 사랑받는한국가요1백곡을 선정, 여러분야로 분석했다. 1백곡의 연대별분포는 20년대노래 2곡, 30년대 13곡, 40년대 15곡, 50년대 23곡, 60년대 27곡, 70년대 12곡, 80년대 8곡으로 나타났고, 남녀가수별로는 남자64곡 여자36곡으로 남자가수노래가 우위를보였다. 주제별로는 애정이 33%로 가장 많았고 향수(18%) 인생(14%)의 순. 한국인이 좋아하는 리듬은 트로트가 50%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이 슬로(15%).

1백곡의 가수·작곡·작사자별 분류에서는 가수는 南仁樹가 7곡으로 수위이고, 趙容弼·文仁이 각각 5곡. 작곡자는 朴是春(10곡) 李在鎬(8곡)의 순이고, 작사가는 半夜月, 兪湖가 각 6곡으로 인기수위에 올랐다. 곡·가사·가수별노래 베스트20선정에서 「곡이 좋다」는 노래는 「오동동타령」(63·8%), 『가사가 좋다』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70·2%),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 좋다』는 「안개낀 장충단공원」, 「누가 울어」「돌아가는 삼각지」등 裵湖의 노래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즐겨부르는 노래

순위	곡명	작사	작곡	가수
1위	눈물젖은두만강	김용호	이시우	김정구
2위	나그네설움	고려성	이재호	백년설
3위	옛시인의노래	이경미	이현섭	한경애
4위	사랑이여	최용식	최용식	유심초
5위	황성옛터	왕평	전수린	이애리수
6위	돌아와요부산항에	황선우	황선우	조용필
7위	편지	임창제	임창제	어니언스
8위	목포의눈물	문일석	손목인	이난영
9위	너	서세건	서세건	이종용
10위	사랑해	오경훈	변혁	라나에로스포
11위	고추잠자리	신광철	조용필	조용필
12위	고향초	김다인	김다인	장세정
13위	타향살이	김능인	손목인	고복수
14위	모닥불	박건호	박인희	박인희
15위	촛불	이희우	조용필	조용필
16위	꿈꾸는백마강	김용호	임근식	이인권
17위	하숙생	김석야	김호길	최희준
18위	애심	김용기	전영록	전영록
19위	번지없는주막	추미림	이재호	백년설
20위	밤배	오세복	이두진	둘다섯

한국歌謠 白書정리에는 未洽했다는 評

地域조사도 서울(50%)에편중돼 不均衡

MBC가 실시한 「한국가요전국대조사」는 한국가요 60년사 정리작업의 하나라는데 뜻이있다. 그러나 이조사가 한국민의 가요관을 제대로 반영했는가에는 많은 의문을 남겼다. 한마디로「통계의 마술」을 보여준 조사였다.

조사는 1926년부터 81년10월사이에 출반된 대중가요 5천곡중 가요전문가들이 1천곡을 선정, 지역조사(1만1천2백50명대상)와 선정인단조사(5백명대상)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응답자는 1만1천3백65명. 이중 지역4천명, 선정인단3백82명등 4천3백82명을 무작위추출, 부문별 순위선정에 참여시켰다.

가요는 세월따라 세대에따라 또 기호에따라 선호가 다른데 이조사로서는 2천만명이 넘는 가요팬에게 공감을 줄 한국가요白書정리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특히 지역조사에서 서울(50%)에 편중되어있고 세대별선정도 20대에 집중되어 불균형을 나타냈다.

『조사폭이 좁아 무의미한 조사가 됐을뿐만 아니라 가요60년사 정리에 빗나갔다』고 가요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지난 10년동안만 해도 5만여곡의 노래가 선보였는데 60년동안을 통틀어 가려내는 이번 선발작업엔 모순과무리가 따를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요사 최대의 히트곡으로 꼽히는 「동백아가씨」나 50년대의 히트곡 「유정천리」등이 베스트20에 들지못하고 『곡·가사·가수의 노래가 좋다』는 「오동동타령」「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안개낀 장충단공원」등이 즐겨부르는 노래 베스트20에 들지 못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최근의 노래는 듣는이의 귀에 생생한 만큼 70년 후반의 노래는 뒤로 미뤄어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밖에 『즐겨 부르는…』이 아닌 『즐겨 듣는…』의 조사결과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 가요관계자들의 입모음이다. 【基】

移動式 히로뽕 密造

釜山 車에 機械싣고 시골다니며 30여kg 만들어 日에 密搬出

【釜山=聯合】부산지검 辛光玉검사는 14일 트럭에 히로뽕제조시설을 싣고 한적한 지방을 옮겨가며 히로뽕을 제조해 日本에 팔아온 새로운 수법의 히로뽕제조판매조직을 적발, 판매책 金鍾憲씨(36·東萊區久瑞洞839)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자금및 원료공급책 李洙榮(40·東區大昌洞1가54) 제조책 安璟仁(52·西區槐亭洞389) 日本밀수책 姜모씨(40)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일당이 제조한 액체 히로뽕완제품 3ℓ, 반제품 분말 4.5kg,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10kg과 제조시설을 갖춘 부산7다4458호 타이탄트럭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료공급및 자금책인 李씨는 지난 7월 하순 이트럭을 구입, 적재함에 비닐로 덮개를 씌운후 현대식 히로뽕제조기구 일체를 갖추고 트럭용 배터리로 이동식 공장을 차렸다는것.

제조책인 安씨는 지난1일부터 11일사이 경남晋陽郡文山面과 金海郡上東面大甘里 앞 산기슭등으로 돌아다니며 이트럭안에서 히로뽕30여kg을 만들어 姜씨를 통해 日本으로 밀수출해온 혐의이다.

이들은 농촌의 한적한 곳이나 산기슭에 트럭을 세워두고 밤에만 히로뽕을 제조해왔으며 감시및 완제품운반을 위해 부산1나4163호 포니승용차를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들 일당은 金海경찰서소속 金창선순경이 방범근무중 이상한 차량을 발견, 검문결과 이같은 제조사실을 밝혀내 검찰이 수사에착수, 이날 그 전모가 드러난것이다.

표주박

"우리는殺人前科者다"협박 돈뜯어 달아나던 2명검거

○…서울南大門경찰서는 14일 安文永씨(27·공원·서울江東區千戶洞301)와 金泰守씨(21·공원·〃)등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7일 洪모씨(40·서울江南區狎鷗亭洞현대아파트)에게『우리는 살인미수혐의로 감옥살이를한 전과자들이다. 어리석은 짓을하면 당신2세들에게 초산세례를 퍼붓겠다』고 위협하면서 2백50만원을 요구했다는것.

○…이들은 그동안 洪씨의부인에게도 10여차례나 같은 내용의 협박전화를 걸어 지난 13일 낮12시께 서울江東區千戶洞 돌고래다방에서 50만원을 받아 달아나다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安씨는『[illegible] 치료비를마련하려고 金씨를 끌어들여 범행했다』고 말했다.

胃癌치료 새藥物療法개발

仁濟醫大 金禮會박사 重症 10명중9명 效驗

◇金禮會박사

수술후 재발했거나 수술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퍼져있는 위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항암요법이 개발됐다. 仁濟醫大부속 백병원 내과 金禮會박사는 14일 10명의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위암환자에게 시스플라틴(DDP)을 비롯 로부스틴(CCNU)과 풀루오로유라실(5·FU)등 3가지 항암제의 병용요법을 실시, 이중9명(90%)에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되고 환부의 50%이상이 축소되는등호전(寬解)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들 위암 환자중 4명은 수술후 재발됐고 6명은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지금까지위암에대한화학요법은 8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레비가 보고한 52%의 관해도(병이 나은것 같이 보이는율)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위암에 대한 화학요법의 관해도는 30~40%선에 머물러있다. 金박사는『이같은 결과를 지난9월부터 2개월간의 투여로 얻어낸것이라며 같이 예기치않은 놀라운 효과에 자신도 놀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수와 함께 장폐쇄증까지 겹친 위암말기환자인 梁모씨(25·여)는 단2회 투여로 증세가 극적으로 호전, 거의 완치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번 金박사가 사용한 시스플라틴이란 항암제는 白金제로 고환염에 잘듣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암엔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다.

▲延世大 암센터원장 金炳洙박사=고무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케이스가 작고 투여기간이 짧은데다 DDT가 白金제제여서 값이 비싸게 먹힌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해보아야 할것이다.

한국, 決勝리그 進出

亞洲농구, 127對85로 泰 大破

【캘커타13日聯合】제11회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ABC) 예선리그 이틀째 경기가 13일 印度캘커타市의 네타지체육관에서 열려 한국은 127-85로 泰國을 대파, 2승을 올려 필리핀과 함께 6강이 겨루는 결승리그 진출이 확정되었다.

전날 첫경기서 싱가포르를 109-62로 누른바 있는 한국은 이날 약체 泰國을 맞아 속공과 야투폭발로 전반을 58-42로 리드하는등 시종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후반들어서도 2진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득점을 올려 대승했다. 필리핀은 이날 싱가포르를 95-46으로 제압했다.

◇제2일전적 ▲C조

한국 127 (69-42, 58-43) 85 태국 (2승) (2패)

필리핀 92 (45-26, 47-20) 46 싱가포르 (2승) (2패)

월드컵女子排球 한국 브라질꺾어 4連敗끝에 1勝

【東京=聯合】한국이 4연패만에 1승을 기록했다.

13일 日本 센다이(仙台)고리야마(郡山)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제3회 월드컵 여자배구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주장 邊京子 金花福 李恩敬등의 맹타와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南美의 브라질에 3-0으로 승리, 1승 4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첫세트에서 지금까지의 부진을 씻은듯 활발한 플레이와 邊京子 金花福의 강연공, 郭宣沃 權貞淑의 날로킹 李恩敬의 중앙속공으로 첫세트를 계속리드하다 10점차로 앞서나갔다.

◇제5일전적

한국 3 (15-13, 15-6, 15-5) 0 브라질 (1승4패) (5패)

美國 3 (15-9, 12-15, 15-13, 11-15, 15-10) 2 日本 (5승) (4승1패)

中共 3 (15-9, 15-3, 15-4) 0 쿠바 (5승) (2승3패)

蘇聯 3 (15-5, 13-15, 15-11, 15-11) 1 불가리아 (3승2패) (5패)

流星의 賦 <235>

感傷異國月 ①

李炳注作 李友範畵

우리는 느끼지도, 깨닫지도, 상상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불행을 준비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사람은 운명을 생각하고 비극(悲劇)을 생각하게 된다.

나라의 규모로서 우리의 역사는 빈번히 이러한 악운속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의 위구(危懼)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한번 상상해 보자. 정여립의 반역사건으로 죽고, 모함하고 모함 당하고, 매일 국청에서 고문하는소리가 요란하고 눈 앞의 사건, 당장의 보복만을 서둘러 영일(寧日)이 없을 때 일본은 이나라를 잡아 삼키기 위해 총포를 준비하고, 칼을 갈고, 배를 만드는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심인물이 바로 풍신수길(豊臣秀吉). 우리는 이 인물을 알아 둬야 할 필요가 있다.

풍신수길의 출생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되어있다. 첫째는 사생아설(私生兒說)이고, 둘째는 귀족의 낙윤설(落胤說), 세째는 축아미(筑阿彌)의 아들이란 설, 네째는 기노시따유에몬(木下彌右衛門)의 아들이란 설이다. 어느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오늘의 일본에 있어선 네째의 설(說)을 채택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설은 「명량홍범(明良洪範)」, 「태합소생기(太閤素生記)」를 근거로 한 것인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수길(秀吉)은 기노시따(木下)의 아들이니라. 어미는 미주 소네무라(尾州曾根村)의 농민의 딸이니라…그 얼굴이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여 부모들도 남도 원숭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자(字)를 사르노스께(猿之助)라고 했다. 아비 기노시따는 싸움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농촌으로 돌아가 죽었다. 과부가 된 어미는 그를 데리고 오다가(織田家)의 신하 지꾸아미(筑阿彌)에 개가했다…』

하여간 그의 출생은 빈천한 것이었다. 그러한 수길이, 군웅할거(群雄割據)하여 백여년펼쳐진 난마(亂麻)와도 같은 전국시대를 수습하여 일본의 천하를 통일했다. 이를테면 일본으로 봐선 일세의 대영웅(大英雄)이었던 것이다.

수길이 일본을 통일한 무렵 조선(朝鮮)을 침략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문헌(文獻)이 증명하고있다. 1586년 3월 16일, 대판성(大阪城)을 낙성하고 예수교의 전도사 가스펠 퀘류를 접견한 자리에서 수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미천한 몸으로 이제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다. 그러니 내 이름의 권위를 후세에 남기는 일 말곤 바랄 것이 없다. 정복할 영토는 없다. 금은(金銀)은 많다. 이 이상 재산을 불릴 생각이란 전연없다. 나는 지금부터 중국과 조선으로 쳐들어갈 생각밖엔 없다. 그런 까닭에 2천척의 군선(軍船)을 만들 요량으로 이미 목재벌채의 영을 내렸다. 당신들 선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서양선(西洋船) 2척을 우리가 사게해달라는 용건이다. 배의 대금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필요품에 대해선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작정이다. 동시에 아주 익숙한 항해사(航海士)도 천거해 주기 바란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6년 전에 풍신수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도를 밝히고 있었다는 얘기다.

모눈종이위의 生 <254>

趙善作 金光培畵

모눈종이위의 生 ㉑

내가 죽음의 궁전으로 선택한 장소는 북악 P호텔이었다. 북악 P호텔의 불특정한 어떤방, 가능하면 호화롭고 전망이좋은 창을가진 어떤방을 나는 머리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테면 그것은 내게있어서 마지막 사치(奢侈)에 속한는지. 죽음에 이르르며 나는 내가 살아온집의 남루하고 비좁은 공간이나 그 비슷한 어떤장소에 나를 눕히고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랴. 북악 P호텔은 어머니께서 그곳코피숍에 앉아 당신의 최초이며 마지막 연인을 기다리시던 장소였다. 「늬 아버지가 안오셔도 여기서 하룻밤 지내려고 했는데…」하고 내게 이끌려 나오시며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내 귓전에서 잉잉거리며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택시로 <P호텔>앞에 도착했다. 해는 졌고 모색(暮色)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다. <P호텔>은 내가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이곳에 처음 와보았을때의 인상 그대로였다. 수묵화처럼 짙게 서있는 검고 우람한 북한산을 등지고 종이로 접어세운듯 날렵하고 깨끗하게 서있는 백악의 건물은 결코 이승의 어떤 구체물이 아닌듯했다. 나는 마치 그 꿈결같은 건물이 나를 손짓해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볍게 달려서 현관으로 갔다.

붉은색의 윤나는 대리석으로 치장된 타원형의 현관에서 하늘색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나를 맞이했다. 현관안으로 들어선 나는 등신대(等身大)의 여인상 옆으로 힐끗 코피숍안을 일별했다. 그러나 그곳에 어머니는 앉아계시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 나를 조금 위축시켰지만 보무(步武)도 당당히 프런트쪽으로 갔다.

『방 하나 주시겠어요?』

라고 나는 거침없이 말했고, 프런트의 서기는 좀 의심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혼자십니까?』

나는 어떤 소설에선가 여자가 혼자서 방을 빌러 오면 먼저 경계부터 한다는 사실을 읽은 일이 있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둘이에요. 이따가 올 거예요』

프런트의 서기는 내게 숙박자 카드를 내주었다. 나는 카드에 가짜 이름, 가짜 주소,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돌려 주었다. 그리고 요금을 계산하자 안내계의 종업원이 나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호텔 건물의 높이가 모두 5층인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자 안내계의 종업원은 나를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5층의 어둑한 복도를 지나 맨 끝방까지 데리고 갔다. 그가 출입문 손잡이에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방안으로 들어서 방안의 등을 모조리 켜고 나오며 말했다.

『편히쉬십시오』

나는 그에게 팁을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해보인 다음『시키실 일이 있으면 5층 당번을 부르십시오』라고 말했다. 그가 돌아가자 나는 방안으로 들어섰다. 과연 내죽음의 궁전으로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만큼 방은 넓고 아름다왔다.

나는 잠시 방의 입구에 서있다가 창쪽으로 갔다. 창의 커튼을 젖히니까 하늘의별과 맞닿은 북악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것은 내가 꿈꾸었던, 바로 그런 경이로운 전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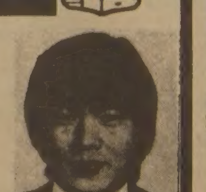
스카이라인을 따라 줄지어선 수은등이 아스라하게 명멸하고, 색등으로 윤곽을 그린 팔각정이 스카이 라인의 한가운데 불쑥 솟아보였다. 그밑으로는 지옥처럼 캄캄한 어둠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실로는 북악의 몸체이겠지만 이미 산은 어두워진 다음인 것이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구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성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편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저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덕이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更年期 이렇게 극복을

專門醫가 말하는 40代女性의 건강관리

젊음에대한 過慾 버리고

부부·家庭生活 원만해야

癌·비만… 早期진단·규칙생활로

여성의 중년은 신체적으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는 시기이다。여성의 여성다움을 상징하는 생리(月經)현상에 변화가 오는 이른바 갱년기를 맞게 되는가하면 40세를 고비로 질염(膣炎)、자궁부정출혈、자궁암、난소암、유방암등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비만과 함께 뼈가 약해지는증세(骨粗鬆症)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이와함께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주름살이늘어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새삼 서글픈 생각을갖기쉽다。중년 여성에서 나타나는 이들 갖가지 건강장애를 극복하는 길은 없는지、가톨릭의대산부인과장 金丞兆박사、慶熙大의대내과장 崔永吉박사、梨大의대피부과장 鞠弘一박사의 처방을 듣는다。

〈갱년기〉중년 여성이 맞는 가장큰 신체및 생리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갱년기현상。갱년기란 쉽게 말해서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를 뜻한다。

여성이 갱년기를 맞는시기는 대략47~51세。그러다 이는 사람에 따라 큰차를 보여 빠르면 40대초반、늦게는 50대로 넘어 가서야 나타 난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세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얼굴이 화끈거리고 번경계달아 오르는가 하면 식은 땀이 잘나고 마음이 까닭없이 불안하며 잠이 잘 오지 않는다。가슴이 두근 거리고 팔다리가 저리며 얼굴과 손발이 부석부석하다는등 가지가색이다。이들 갱년기증상은 중년여성의 대략 50%정도에서 문제가되고있다。그러나 증세가 심해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은 10~15%정도에머문다。

갱년기증상은 크게 생리및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고있다。생리적인 원인은 여성호르몬분비에 균형이 깨지는 일이다。다시 말해서 난소의 여성호르몬분비가 적어지는반면 뇌의 난소자극호르몬분비가 증가한다。이에따라 여성의 여성다움을 상징하는 생리가 멎게된다。여성에게서 갱년기 증상이 남성에 비해 뚜렷한 것은 이 때문이다。심리적인 원인은 사회문화적인면과 개인의 인격과 성품등이 영향을 미친다。갱년기증상은 이같은 심리적인면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부부 또는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다든지 내성적이고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것은 이때문이다。따라서 여성의 갱년기증상을 치료하는 일은 부족한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만을 보충해 주는것으로 모든것이 해결되지않는다。본인은 물론 남편과 가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또한 호르몬요법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암을 비롯한 각종 종양을 비롯、고혈압과 심장병등을 크게 악화시킬수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호르몬요법은 사전에 철저한종합 검진을한후 전문의의처방에 따라 조심스럽게해야 한다。

갱년기장애는 약물요법에 앞서 젊음에대한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겠다는 마음자세와 삶의 보람을 찾는일에 힘을쓰고 규칙적인 생활과적당한 운동、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해 극복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암〉40세를 고비로 자궁경부암、난소암、자궁체암、유방암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피가 섞인 냉이있다든지 유방에 멍울이 생기면 곧 전문의와 상의한다。1년에 2회정도 암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받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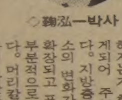
〈비만〉생활이 안정되어 이에따라 섭취칼로리가 많아진 반면 운동량이 적어지는데 원인이 있다。몸이 뚱뚱해지면 당뇨병을비롯 고혈압、동맥경화、퇴행성관절염등이 쉽게문제를 일으킬수 있다。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힘쓴다。동물성지방、설탕、함수탄소식을 줄인다。기름기는 식물성으로 섭취한다。

〈골조송증〉갱년기에오는 호르몬분비이상과 칼슘및 단백질대사의 이상이원인이 되고있다。특히 등뼈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이때 몸이비대하면 비대한만큼 뼈에 부담을 주어 증세가 심하게 나타난다。특히 몸의 무게가 걸리는 무릎관절등에 큰 부담을 주어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한다。기름기를 뺀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비타민D의 섭취에 신경을쓴다。갑자스럽게 무거운물건을 든다든지 몸을트는일을 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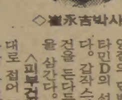
〈피부건강〉피부는 40대로 접어 들며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피부가 건조해지는가 하면 탄력성을잃게되어 주름살이 생겨난다。지방층이 쇠퇴하고 색소의 변화가 온다。혈관이 확장되고 표피가 엷어지며 부분적으로 각화현상이 온다。머리칼도 희어지고 잘 빠져 나간다。손톱은 엷어지고 잘부스러 진다。

이같은 피부의 변화는여러가지 피부병을 쉽게 일으키게 한다。가려움증과 습진、무좀과 같은 곰팡이병(표재성백선증)、피린계통 약물에 의한 발진、얼굴과 같은 곳에 흑(양성피부암)과 점(母斑)、검버섯(일광각화증)、목과 빰부분이 벌겋게(모세혈관확장증) 드러나고 입가장자리에 여드름(구강 주위염)등이 잘돋아 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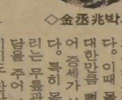
중년여성의 이같은 피부를 보호하기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휴식과함께 적당한 운동을하고 균형있는 영양식에 신경을 써야한다。이와함께 새로운 적절한 화장법을 개발할 필요가있다。주름살은 피부의 혈액순환장애、영양의 불균형、심신의 피로、내분비이상、일광과 추위、바람、부적당한 화장품、약품의 과용、피부의 불결이 큰 영향을 미친다。피부를 자주 깨끗이 씻되 짙은 화장을 피하도록한다。화장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정도가좋다。화장을 꼭해야 한다면 향료가 짙지않은것으로 한다。목욕과 온습포를 자주하고 피부마사지를 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李光榮기자】



◇鞠弘一박사



◇崔永吉박사



◇金丞兆박사

◇안토니·부르델의「페넬로페像」。페넬로페는 희랍신화의 오딧세우스의 妻로 끝까지 自己를지킨 현명한 아내의 表像이다。(1908年作。銅240cm)

「남편의 그림자」에 懷疑

文學作品 속에 비친 中年女人像

自己발견時期「새삶」눈떠

"먹고자고 아이키우고…그외 뭔가있다"

安住보다는 苦痛속의 獨立性을 갈망

「自身의位置」스스로 찾아야 보봐르"선명한 解決策없다"

文學작품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中年은 自我意識에 눈떠가는 하나의 길목으로 묘사되곤한다。가정、결혼생활、자녀등과 연결돼 있던 탯줄과같은 끈이 어느날 갑자기 끊어지면서 중년의 여성은 비로소『내가 누구인가』『나는 정말 행복한가』를 自問한다。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자유로운 主體者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삶을구해 도전한다。文學속에서 그려지는 중년여성은 이처럼自我의식에 눈을뜨고 자기를 표현하고 성취하기위해 決意하는 강인하고 대담한기질의 여성이다。이같은 중년여성의 모습은 이소설을 쓰는 작가자신의 決意이며『중년여성의 理想的인 모습은 자기 삶의 主人은 남편도 가정도 아닌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것』이라는 작가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들 작가들은 중년여성의 문제는 외부적인 유희나 오락에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우며、누구에서도 진정한 위로나 구원을찾을 수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그리고 그해결의 門은 스스로 열어야하며、만일 그 해결의 門을열고자하면 스스로 열수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중년여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古典으로는 노벨문학상수상작가인 프랑스와·모리악이 쓴 절작「테레즈·테케루」가 꼽힌다。이소설은 27년에 출판된 소설이지만 주제의 전개및 스토리에서 상당히 현대적인 氣風이넘치는 작품이다。서로 理解이 맞지 않는 부부、애정이 완전히 사라진 결혼생활、그같은 삶속에서 테레즈·테케루는『헝클어지고、흐트러지고、나 자신을 어디다가버리고 온듯한 허전하기 짝이없는 이상한 心情』에빠진다。

그녀는 너무나 凡俗한 부부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떠나려하지만 남편은끝끝내놓아주지않는다。테레즈는 남편을 독살하려다 발각되고、재판을 받는다。작가 모리악은 테레즈의 편에 서서 재판과정을 그리는 장면에서『왜 독살하려 했는가。그 밖의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등 그녀를 옹호한다。테레즈는 공소기각의 처분을 받고、파리로 나가 새 삶을 시작한다。이 소설은 중년여성의 착잡하고 미묘한 심정의 묘사가 뛰어나、그 착잡한 문제를 놓고 작가·주인공·독자 3인이 모두 함께 괴로와하는 심각한문제의식을 던진다。

여성의 의식화를 다각적으로 다뤄온 시몬느·드·보봐르의 소설「危機의女子」「초대받은 女子」「아름다운 映像」은 모두 한 여성의 심각한 自己省察과 自覺을 주제로 한다。

특히 화제가된「위기의 여자」는 인생을 사랑과결혼에 걸었던 여성이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알고 뜻하지 않았던 암초에 부딪치게 되는 이야기이다。그녀는 그 사실을 처음알았을때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이지만、차츰 자기성찰을 시작해 보고、「나의 행복은 한낱 虛像이었으며、남편은 바로 빛이었으나 나는 빛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다。그리고 그다음 그녀는 중년여인이 흔히 그렇듯친구들、딸、정신과의사등에 매달려 위안을 구한다。그러나 그들에게서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하고『구원은 누구에게도 청할수없는것。나자신이 나의 영혼을 구해야 한다』고 자각하고스스로 해낼수있으리라는 自信을 갖는다。「나」라는 일인칭의 日記體로된 이소설은 독자들이 자기자신의 얼굴을 보게하는 同一化의 힘을 담고있는 작품으로평가된다。

보봐르의「아름다운 映像」(39년)도 중년의 위기에 선 여성이 그때까지 행복으로 알아왔던 것들의 헛됨을 알아보고、「實體가 없는 아름다운 영상」을 버리고「고통스럽지만 진실한 실체」를 찾기위해 자기 存在에 대해 눈을 뜨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우리나라 여류작가들도 최근 여성문제를 正面에서부터 굴착해 들어가는 소설을 써내고 있다。金眞玉씨의 장편「裸身」(78년刊)、李德子씨의「나팔수」(79년)、朴婉緖씨의「살아있는 날의 시작」(80년)、崔美娜씨의「마지막 薔薇」(80년)등은 대담한 주제와 스토리로 눈을 끄는 강한 소설들이다。

「裸身」은 자신의 內的인 삶이 파괴될 위협에 부딪치자 자기자신을 건지기위해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나오는 여성을 대담하게 옹호한 작품이다。

「裸身」의 주인공은『먹고、자고、아이키우고…사는것이 그뿐일까? 아니다。분명 그뿐이 아닌것이다。그 동물성을 빼고도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그녀는 그 무엇인가 未知의것 X(엑스)를 찾기위해 대학에서 학문을 하고 글을 쓴다。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못하는 남편과 불화를빚게되고、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이혼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그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후 훼손될 사회적체면을 염려하기 때문이다。그녀는 남편의 二重的 위선을 더욱 혐오하며 법원에 소송을제기한다。작가 金眞玉씨는 이 소설속에서『가정만이 女子의 행복이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격한 톤으로주장하고、『남녀 능력의 차이는 남녀의 선천적결과가 아니라、절대적인 남성중심의 文化에서 생긴 후천적인 결과』라는등 본격적인 女性學의 이론을 소설의 곳곳에 도입시켜『우리나라 최초의 女性學소설』로 평판됐다。

「나팔수」도 철저한 俗物근성에 빠져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절박한 斷絶感을 느낀 여성의 각성을소재로 한다。「나팔수」의 주인공은 中年이되면서 그때까지 잠자고있던 意識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곤하는 것을 강렬히 느낀다。자동차사고로 아내의 이빨이온통 부러졌는데도 남편은그것보다는 자동차의 수리걱정만한다。이 사건에서 아내는 절망하며、아파트를 나와버린다。그리고 그녀는 가슴깊이 숨겨뒀던 자기의 나팔(自我)을 찾아 꺼내불며、그녀도 자신의 나팔(자아)이 있다는것을 알리고 그것이 바라는것대로의 삶을 찾아가기로결심한다。李德子씨는 이 소설속에서『절망가운데 애정없이 사는「아내의위치」라는 어두운 地帶에 진정한 휴머니즘의 등불을 들이비춰야할 때』라고 쓰고 있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마지막 장미」는 지극히 평범했던 중년주부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나온 삶의「虛構性」을 발견하고 감히 상상조차 해본일이없던 家出을 하는 스토리를 다룬다。朴婉緖씨는「살아있는 날의 시작」에서『여자니까…』하고 어떤 굴욕이든 받아들여야 하는 비인간적인 불평등에 강한의문을 붙인다。그리고『여자기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참한 굴욕도 참아야한다는 것은 強者가 弱者에게、또한 主人이 그의 예속물인 下人에게 자행하는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장미」도 中年여성이 자기의 삶이 남편의 삶의 複寫版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스토리로엮어진다。崔美娜씨는 이 소설의 끝에서 가출하는 주인공의 行方을『남편도 애인도 모르는 곳』으로 그리며 그녀의 행방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없이 소설을 닫는다。

올해 출판된 신시아·프리먼의 소설「평범한 女子」도 한여성이 자아발견을 위해 길고긴 行路를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이 소설은 프리먼여사가 65세의 나이에 쓴것으로、현재까지 30주간동안 베스트·셀러·리스트에 올라 있다。「평범한 여자」의 주인공은 나이가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껍질만 남아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지난 20여년간 살아오며 모르고 지냈던「自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나는 마치 아무 데도 쓸모없이 버려진 자동차의 다섯번째 바퀴와 같다。나도 쓸모있는 이가 되고 싶다。내일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욕구에 사로잡힌다。그녀는 매일 늦게들어오고 자기일에만 열심인 남편도 껍질 뿐인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헤어져 버린다。

그녀는『자기의 일』을 하고싶고『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고싶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뉴욕에 옷가게를 마련한다。그녀는 옷가게를하면서 비로소 웅덩이에 괴어 썩고있는기분에서 벗어난다。마침내 뭔가를、자기의 삶을 채우는 뭔가를 발견해낸 주인공은 모처럼 포근하고 편안한잠을 잘수있게 되며、다시 진정으로 웃을수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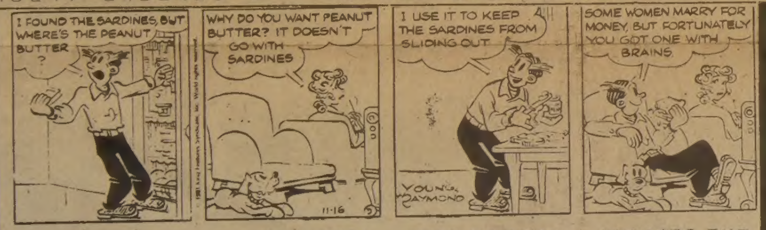
이 일련의 소설들은 주인공 여성들이 자기를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그 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이들 작가들은『벌거숭이 몸으로 나선 이 주인공들은 앞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들겪으며 편견이 빚어놓은 온갖惡意에 의해 시달리게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리고 이 작가들은『또한 이들 주인공들이 가출을 하는 것으로 소설을 맺었지만、그 가출이 그녀자신과 주변인들이 안고있는 문젯점을 잘 해결해 줄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이때문에 대개의 작가들은 이같은 소설에서 실상「결론」을 내리고「해결책」을 제시하는것을 피하고 있으며、다만 작가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적절한 推移를 그려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같은 종류의 여성소설을 다수써서『대표적인 여성소설의 작가』로의 이미지를 굳힌 시몬느·드·보봐르는『여성들은「자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때 고독해지고 불행해진다』고 말하고『그러나 그 위치를 확인하기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각자의 문제이며、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보봐르의 이解明은 中年의 여성문제에대해 어떤 선명한 대답이나 해결이어렵다는점을뜻깊게 시사한다。【禹桂淑기자】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連載漫畵



"정어리는 찾았어。한데 땅콩버터는어디에있지?"

"땅콩버터는 왜찾죠? 정어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정어리가 미끌어지지 않도록 버터를 바를참이야"

"어떤여자들은 돈보고 결혼하지만 다행히도 당신은 머리좋은 사람을 골랐어"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일보 詩壇

絶叫 41

黃 蒙 山

노、주、빨、보、남、파、초
思念의 꽃이 피네
칼바람 휘감기는
목숨의 가지 끝에
매달린
털북숭이
소망
난도질한 아픔이여
차라리 놔버릴까、
둥지없는 차거운 이 세상
心壁에 휘몰아치는
비바람 천둥소리……
내 한생
헤갈대는
넋
저 낭자한 旋律이여。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 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00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3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서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8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5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 : (B)532-6143
(R)532-9638

GAS ATTENDANT구함
☎ 782 6311

매주 일요일만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 : 531-0277 (Mrs. 황)

스토아 헬퍼구함 (일요일)
(시간 : 12시~8시)
☎ : 921-0624(다운타운)

"동업자 구함"
중국음식점. 현재 한국인이 경영하고있음
희망자는 시설비 약2만불 정도. 경험유무는 관계없음
☎ : 656-0483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도나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오후 4시~밤1시
☎ : 499-4459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공장에서 꾸준히 일할 한국 남자를 구합니다.
스카보로 지역에 위치함.
문의처 : BILLO ☎ : 690-5177

에드몬톤에 위치한 자동차수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실 남자분 구합니다.
☎ : 533-2364(Mrs. 김)

매니저 구함
도나스 샾과 햄버거샾을 완전히 맡아서
하실분.(약간 보증금 요함)
대가족 원함. 좋은조건
1468 QUEEN ST. W.
직접내방 요함(Mr. 박)

매매및 양도

커피샵 매매
리스 : 17년. 렌트 : 450
월~금 영업 영업시간 8시반~6시
의사빌딩 내에 있음
☎ : 767-4653, 447-9736(Mr. Wong)

성업중인 레스토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에 알맞는 도바코트와 GEARY코너의 스토아. 경쟁이 없는지역 1200Feet 렌트에 좋은 OFFER를 줌 ☎ : 535-175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터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231-1740 MRS. 강

스토아 급매
멀 안에있는 버라이어티 기프트샵을 급매합니다.
주매상 : 3천2백달러
아스킹 : 3만5천달러
전화 : 223-8805
(MR. 리)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
7721 YONGE ST & CENTRE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가정형편상 급히 처분하고자 함)
☎ : 526-7179 해일른
(오전10시~오후5시 연락바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급 매
카메라 스토아(전자제품 일부포함)팝니다.
$25,000+스탁
619 BLOOR ST. W.
☎ : 534-1085

급 매
매우 깨끗한 2베드룸 아파트와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급매합니다.
사거나 팔기를 원하시는분은
Ms. 메리 이바타에게 연락요
☎ : 270-3930
277-2490
MONTREAL TRUST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친 ☎ : 745-5555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
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DAVENPORT — OLD WESTON RD
3베드룸 , 2화장실
☎ : 536-8506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번 달 원 (R)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Mrs남

카펫 · 카텐

가나안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미 용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Q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패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SOO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꽃 집

남미꽃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장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50% OFF)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 ?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 2줄 1칸 …… 3 회 ………… $10.00
● 2줄 1칸 …… 5 회 ………… $13.00
● 2줄 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